

증시로 자금이탈 차단, 수신 경쟁에 저축은행·상호금융 대출금리 상승

한은, 상호금융 일반대출 금리
지난 2월 4.38%, 3월 4.42% 오름세
상호금융 2월 9.58% 꾸준히 상승
취약차주 금리부담 확대 대비해야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 고객이 시중은행 대출상담 창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최근 저축은행·상호금융권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증시 자금이탈을 막기 위한 예금 금리 인상 경쟁이 조달 비용 부담으로 일부 이어지면서다. 증시로의 '머니무브'를 막기 위한 수신 경쟁이 취약차주의 금리 부담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일반대출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지난 1월 4.35%, 2월 4.38%, 3월 4.42%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신협은 경우 일반대출 금리가 지난 1월 4.55%에서 3월 4.66%로 0.11%포인트(p) 상승했다. 새마을금고는 같은 기간 4.40%에서 4.44%로 0.04%p 올랐다.

저축은행 업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상호저축은행 일반대출 금리는 지난 3월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해 11월(9.19%)부터 올해 2월(9.58%)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출 금리 상승 배경 중 하나로 증시 머니무브에 따른 금융권 수신 경쟁이 꼽힌다. 2금융권의 증시로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예·적금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조달 비용 부담이 확대됐고, 이상황이 자연스럽게 대출 금리를 밀어올렸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식시장 활황으로 자금 이탈이 많아지고, 은행권들이 수신 금리를 올리는 현상이 바로 대출 금리에 반영되지 않고, 보통 한 3~6개월 텀이 있는데 지난해 말부터 주식시장이 인기를 끌면서 증시 머니무브로 인한 수신 금리 경쟁이 대출 금리를 밀어 올렸다"고 말했다.

상호금융·저축은행권은 시장금리, 정기예탁금 금리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기준금리에 신용원가, 업무원가 등을 고려

한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 금리를 산정한다. 수신 금리 상승이 대출 금리 상승으로 직결될 수 있는 단순 구조인 것이다.

2금융권의 경우 시중은행과 달리 이같은 영향이 더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중은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요구불예금이 많기 때문에 예금 금리 상승이 대출 금리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만,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은 요구불예금 기반이 약해 예금 금리가 오르면 바로 대출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요구불예금은 예금자가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예금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일종의 대기성 자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을 오시는 분들은 금리 매력도를 보고 예·적금 가입을 위해 오는 사람이 많다. 시중은행에 비해 대기성 자금이 없어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 인상 경쟁에 대출 금리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취약 차주들의 부담이 우려된다.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이용자의 상당수가 중·저신용자인 만큼 금리 상승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어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metro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4년	'25년	1Q(A)	2Q	3Q	4Q	'26년 1Qp(B)	증감 (B-A)	증감률
국내은행	22.2	24.1	6.9	7.8	6.3	3.0	6.7	△0.3	△3.9
일반은행	14.8	16.2	4.2	5.3	4.7	2.1	4.3	0.1	1.6
시중은행	13.0	14.3	3.8	4.7	4.1	1.8	3.7	△0.02	△0.6
지방은행	1.2	1.2	0.3	0.4	0.4	0.1	0.3	0.01	4.0
인터넷은행	0.6	0.7	0.2	0.2	0.2	0.1	0.3	0.1	45.3
특수은행	7.4	7.8	2.7	2.5	1.6	0.9	2.4	△0.3	△12.3

/자료=금융감독원

1분기 은행 순익 6.7조... 전년비 3000억 ↓

금감원, 일반은행 1000억 늘어 4.3조
특수은행 3000억 줄어든 2.4억 기록

지난 1분기 국내은행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00억원 감소한 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일반은행과 시중은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특수은행의 수익성이 악화한 영향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은행의 총당기순이익은 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일반은행(시중·지방·인터넷)은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1000억원 늘어난 4조3000억원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특수은행은 2조4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3000억원 줄었다.

일반은행 가운데 유형별로는 시중은행이 전년동기보다 1000억원 감소한 3조7000억원을 기록했고, 인터넷은행은 직전 연도보다 1000억원 늘어난 2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방은행은 3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1분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4%로 집계돼 전년 동기(0.71%)보다 0.07%포인트(p) 내렸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8.68%로 0.89%p 하락했다.

매출 항목별로는 이자이익이 전년동기

/안승진 기자 asj1231@

보다 1조원 늘어난 14조9000억원을 기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순이자마진(NIM)은 1.53%에서 1.56%로 0.03%p 올랐고, 이자수익자산 규모는 3393조9000억원에서 3556조원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규모는 전년동기보다 7000억원 감소한 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유가증권관련이익이 적자전환한 영향이다.

지난 1분기 판매비 및 관리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억원 증가한 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인건비는 지난해 1분기과 비교해 1000억원 늘었고, 임차료·연구비 등 물건비도 2000억원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총 대손비용은 전년보다 3000억원 줄어든 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은행의 대손비용이 3000억원 줄어든 1조원을 기록해 하락을 견인했고, 특수은행의 대손비용은 4000억원 수준에서 제자리걸음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라며 "건조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 및 포용 금융등사회적·공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다.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민·학계 출신 '5파전'

박경훈·이동철·임영진 등 지원
27일까지 심사, 내달 인선 마무리



지난 2010년 이후 여신협회는 관료 출신이 대다수였다. 6명 중 5명이 기획재정부 혹은 금융위원회 등에서 근무한 이력을 지녔으며, 민간 출신 협회장으로는 2016년 취임한 김덕수 전 KB국민카드 대표이사가 유일했다.

여신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자 공모가 마무리되면서 7개월간 지내왔던 협회장 인선 작업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기존 하미평에 없던 박경훈 전 우리금융캐피탈 사장(사진)이 공모하면서 디크로스'로 떠올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회장 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 19일 오후 6시 차기 회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했다. 총 5명의 후보자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는 민·학계 출신 중심으로 구성됐다. 박경훈 전 우리금융캐피탈 사장, 이동철 전 KB금융지주 부회장, 임영진 전 신한카드 사장,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이 지원했다.

기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관료 출신의 서태종 전 한국금융연수원장과 김근익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이번 후보자 공모에 지원하지 않았다.

이 같은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입김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협회장 공모를 앞두고 청와대와 금융위원회가 "관료 출신들은 여신금융협회장 선거 후보에 등록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인력에서는 "전 KB금융지주, 신한카드 사장 역시 나서지 말라"고 언급했다는 전언도 나온다.

이에 따라 박경훈 전 우리금융캐피탈 사장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박 전 사장은 1962년생으로 전남 신안군 출신이다. 동대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제

경제학박사를 졸업했다. 1990년 우리은행에 입행해 약 30년간 몸담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전략기획부 부장대우, 우리은행 경영기획단 영업본부장대우, 우리은행 본점 1기영업본부장, 우리은행 글로벌 상무 등을 지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우리은행 미래전략단 상무, 우리금융지주 경영기획총괄 부사장, 우리금융지주 경영기획총괄 겸 WM총괄 부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0년 우리금융지주 재무부문 부사장을 지낸 뒤 2021년 우리금융캐피탈 초대 대표이사를 맡았다.

한편, 여신금융협회 회추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서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후보군을 압축해 내달 면접 및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단독 후보를 확정된 뒤 회원사 총회 의결을 거쳐 회장으로 최종 선임한다. 인선은 내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신한은행, 내일부터 국민성장펀드 판매

신한은행은 오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총 45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국민성장펀드'의 장기적 운영성과를 일반 국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투자상품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판매를 통해 국민의 투자 자금이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성장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금융 확대 흐름에도 동참한다. 아울러 고객이 정책형 투자 상품의 취지와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 조력자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입은 신한은행 영업점과 신한 SOL

뱅크 앱을 통해 가능하며 1인당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며 가입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이 최대 20% 범위에서 우선 부담하는 손실 완충 구조를 갖췄다. 다만 투자상품 특성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가입 전 상품 구조와 투자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나유리 기자 yul117@

공항버스 등 시외·고속버스 23개 노선 신설

국토부,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연계
전주·군산·완도·해남공항 이용 편리
서울고속버스터미널~평창 노선 마련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민들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버스 8개를 포함한 시외·고속버스 노선 23개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시외·고속버스 신설 신청을 검토한 결과, 공항버스를 포함한 신규 노선 인가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철도 운행 횟수가 적거나 중간 환승이 필요했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전주·군산·완도·해남 등 지역에서도 공항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공항버스 노선은 ▲김해공항~전주·익산·군산 ▲청주공항~김천~구미~동대구 ▲전주~완주혁신도시~청주공항 ▲인천공항~해남~완도 ▲화순~장성~인천공항 ▲인천공항~영암~해남 ▲서산~당진~청주공항 ▲부산~서천~인천공항 등 8개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평창으로 가는 노선과 유성~경주~포항 노선도 새롭게 운행한다.

고속버스 노선도 확대된다. 서산~전주, 청주~당진, 청주~보령 노선 등 3개가

새로 생긴다. 그동안 대전 환승이 필요했던 충남권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현재 평택과 창원을 잇는 철도 운행 횟수가 하루 3회에 그치는 점을 고려해 평택~창원 노선도 마련했다.

서울~포항과 서울~서산 노선 일부 운행 편은 중간 정차지를 추가하거나 종점을 변경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정 업체 독점을 막기 위해 신규 노선 운영 기간을 11년(노선버스 차량)으로 제한하고, 노선 필요성과 운송 실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1년 이내 운행하지 않을 경우 인가를 철회한다. 무단 미운영이나 휴업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합성 판단 대상에서 제외해 다른 사업자의 운행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임의 경로 변경 등 면허 내역 위반 사업자는 노선권을 폐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외·고속버스 노선 신설이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지방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필요한 노선을 지속 확충하고, 버스의 공공성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재리 인턴기자 cr56@